

“대한방직 부지에 호텔 건립을”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서부 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미숙 시의원(효자 3·4동·사진)은 20일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남권으로 확장된 전주 서부 신시가지 중심에 자리한 대한방직 부지가 40년이 넘도록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장 이전과 개발이 임박한 후반기 마감을 촉구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추진 제안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항간에는 대한방직의 부지매각 공고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비상식적 행태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며 “전혀적인 자산 주 구조의 대한방직 공장부지 매각설이 나오면 당연히 주식이격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매각설과 매각 공시 발표 이후 대한방직 주가는 89.58% 올랐다. 매각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방직 주식을 샀고, 결국 매각 무산으로 대한방직 주식기도 4~5

만원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개미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974년에 설치한 대규모 슬레이트 석면 지붕을 40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 시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전주시 환경과 미관을 해치며 계속 버티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주의 대한방직 부지를 추가 조작성 도구로, 환경오염지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방향으로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을 위한 복합용도개발형(MXD, Mixed-Use Development) 사업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42조 2항 제8호에 근거,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녹지 등

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단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송도국제업무지구와 화성 메타폴리스, 광고 파워센터 창원의 더시티 세븐 등과 같이 서부 신시가지에 가장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전주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와 호텔건립, 경기장 이전 사업이 위치 선정과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방직 부지에 컨벤션센터, 호텔 건립을 추진할 경우, 백화점과 공동주택 등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개발 이익금을 공공기여 형태로 개발부지 일부를 내놓는 방법과 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전주시 공공시설을 건립해 주는 방식으로 개발하면 민간사업자와 전주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고창 아산에 멧돼지 출몰... 마취총 포획

20일 오전 8시50분경 전북 고창군 성내면 한 아산에서 울무에 걸린 멧돼지 1마리를 주민이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주변을 통제하고 마취총을 쏘 멧돼지를 포획했다. 멧돼지는 마취총을 맞은 뒤에도 소리를 지르고 주변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웠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웃 주민에 음란문자 보낸 5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사진과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윤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남원시 자택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밤 연애하자, 모닝 키스할까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와 음란 사진 등을 모두 19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재 기자



“따라잡을거야” 20일 전주 우림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법원,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손해액 산정 시작

익산시가 건립을 중단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20일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현장으로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 시공사는 공사과정에서 받은 40억원과 추가 손해배상액 28억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에서 파견한 감정인은 한국환경

공단과 시공사, 익산시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최종 감정가를 산정한다. 이날 감정인은 “이미 투입된 공사와 투입에 대비해 만들어진 기계·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감정액을 산정하고 이것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하루 100씩 발생하는 하

수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유로 지난 2014년 8월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시는 총사업비 198억원 중 지난 2014년까지 국비 112억6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국비는 모두 138억원이다. 당시 공정률은 17.3%로 이때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46억원이다. /뉴시스

전주평생학습관, ‘우리학교 시즌5’ 수강생 모집

내달 7일부터 6주간 운영

전주시와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오는 11월과 12월에 운영되는 ‘우리학교 시즌5’ 과정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시민과 강사, 전문가에게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우리학교 시즌5’에서는 자기개발과 문화예술, 인문강좌, 정보, 직장인반, 어린이반, 색다른 하루, 너머교실(학습관 너머에서 진행되는 수업), 알일이 특강(알면 알수록 삶이 2% 나아지는 특강) 등 다채로운 분야의 29개 프로그램을 준비해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우리학교 시즌5’에서는 12월 연말 분위기 연출을 위해 학습해보는 시간으로 △달콤한 와인하기 스

머드는 날 △쉽게 배우는 손뜨개 △전통매듭 악세서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되는 알일이 특강은 푸른안과 윤상원 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시력저하 가져오는 안과 질환, 백내장의 모든 것!’을 주제로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노안과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모니터 사용 증가 등 눈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생활습관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안과 질환인 백내장에 대한 정보와 예방법 등 전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jedu.c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41-11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도로명주소 정착 퀴즈이벤트 전개

전주시는 20일 ‘2016 전주비법축제’를 찾는 내방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이색 홍보에 나섰다. 오는 23일까지 전주비법축제가 열

리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합동으로 ‘도로명주소의 마법 3가지만 알면 확실히 보인다!’라는 전단지 배포하고 퀴즈 맞추기 이벤트를 전개한다. /김영재 기자

전주 명인·명장을 만난다

시, 22일~11월 6일까지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전주의 명인(名人), 명장(名匠)들이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뽐내는 공개행사를 펼친다. 특히 전통의 혼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힘써온 무형문화재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면모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무형문화재 보존·계승하기 위해 힘써온 전주시 무형문화재들의 공연과 전시 등이 이뤄지는 무형문화재 주간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주 소리문화관과 어진박물관에서 진행한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보존조례’에 근거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 일반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 걸쳐 펼쳐지며, 이번 행사는 예능보유자 공연과 기능보유자 전시회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오는 22일과 23일까지 이틀간 전주소리문화관에서는 ‘나의 전설, 우리의 전설’이란 주제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12명과 2개 단체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예능공연에서는 오종수(시조창), 이선수(가곡), 김영희(시조창), 지성자(가야금산조), 박애숙(가야금병창), 문정근(전라삼현승무), 김광숙(예기무), 이길주(호남산조춤), 최승희(심청가), 이순단(흥보가), 왕기석(수궁가), 주봉신(고법), 전라삼현육각보존회, 영산작법보존회 등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이 각 종목별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어진박물관에서 전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작품전시회가 ‘명장의 손(手)’을 주제로 진행된다. 작품 전시회에서는 조정형(향토술담그기), 고수환(약기장), 이의식(옷칠장), 최은순(침선장), 최홍식(약기장), 김재중(소목장), 신우순(단청장), 김년임(전통음식), 윤규상(우산장), 최중순(약기장), 최대규(나전장), 이진일(낙죽장), 이종덕(방짜유기장), 곽종찬(모필장) 등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4명이 수십 년 고집과 정성으로 이어온 무형문화재 작품을 무형문화재 주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